

와키모토 유적(脇本遺跡)

나라 분지 동남부의 사쿠라이시(桜井市)에 있는 조몬시대~나라시대의 복합유적이다. 미와야마(三輪山) 산 남쪽 기슭과 하세가와(初瀬川) 강의 북쪽 가장자리 사이의 좁은 단구상에 펼쳐지는데 동쪽의 하이바라(榛原)~도고쿠(東国)로 통하는 관문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고분시대 중기 말의 유랴쿠오키미(雄略大王)의 왕궁인 하쓰세아사쿠라노미야(泊瀬朝倉宮)의 유력한 후보지로서 유명하다.

이 유적에서는 크게 세 시기의 유구군이 주목된다. 즉 ① 야요이 시대 후기 후반~쇼나이기(庄内期) ② 고분 시대 중기 후반~후기 ③ 아스카 시대의 세 시기이다.

① 길이 400m의 범위 내에서 20동이 넘는 수혈건물 등이 검출되었다. 특히 SB13004주변에서 출토된 청동기 주조 관련 유물이나 철기생산 관련유물 등이 주목되었다. 해당 시기의 청동기 주조 관련 유물은 나라 분지에서는 동남부의 와키모토 유적과 다이후쿠(大福) 유적에서 밖에 출토되지 않는다. 게다가 청동기 주조 관련 유물에 동탁 파편이나 동축의 주조 실패품이 포함된 것이 상징하듯이 야요이 시대에 상징적 기물을 파괴해서 그것을 원료의 일부로 사용해 새로운 기물을 제작했던 것이 상정된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당기의 왕권 중추가 존재했을 것으로 상정되는 마키무쿠(纏向)유적에서는 동일한 분지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청동기 주조 관련유물은 출토되고 있지 않는다. 다만, 동탁의 파편이 출토되고 있어서 아직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② ①과 조금 거리를 두고 같은 범위 내에서 수혈건물 5동 이상, 굴립주 건물 5동 이상 및 돌로 가장자리를 만든 대규모 연못 혹은 호상(壕狀)유구 등이 검출되었다. 이른바 하쓰세노아사쿠라노미야와 관련성이 높은 유구군이다. 분지와 가까운 서쪽에는 연못 혹은 호상유구가 조영되고 후미진 동쪽의 한 단 높은 곳에 굴립주 건물군, 한 단 낮은 곳에 수혈건물군이 배치되고 있어서 도고쿠로 통하는 관문의 관소와 같이 왕궁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②의 굴립주 건물군이 펼쳐진 장소 주변에서 8간×3간의 동서 주축의 대형 굴립주 건물이 검출되었다. 그 주위에서는 정방위의 목책모양의 유구가 펼쳐지는데 거의 100m사방의 범위에 대형 굴립주 건물군이 펼쳐졌을 것으로 상정된다. 그것은 덴무(天武) 조(朝)의 하쓰세이쓰키노미야(泊瀬齋宮)에 관련된 유구군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도고쿠의 관문에 해당하는 좁은 단구 위에서는 특히 ①~③의 시기에 정칙적 색채가 강한 유구군이 펼쳐졌다. 그것은 왕권중추가 나라 분지에 소재하고 있었던 고분시대~나라시대 기간 중에 도고쿠와의 경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생겨 출현한 느낌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도 결코 큰 유적은 아니지만 왕권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략요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